

 인천광역시		보 도 자 료		경 추 재외동포청 개청
		배포일자	2023년 6월 30일(금) 총 2매	
담당 부서	공보관실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식품지도담당 • 담당자 	정혜원 ☎440-2771 오준길 ☎440-2772
사진(이미지)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시, 여름철 식중독 예방대책 민·관협의회 개최

- 26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해 식중독 예방 및 신속 대응 논의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6월 30일 인천시청 소통회의실에서 ‘식중독 예방대책 민·관 협의회’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협의회에는 시, 경인지방식약청, 인천시교육청, 보건환경연구원, 군·구 및 위생단체 등 26개 기관이 참여했다.

이날 회의는 식중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관리와 식중독 발생 시 확산 방지 및 신속한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, 2023년 상반기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하고 각 기관별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를 공유했다.

특히, 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진 노로바이러스는 유관기관 간 상호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으며, 집단식중독 발생을 대비해 △다소비 식품 관련 배달음식점 특별점검 △학교 급식소 등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△계절별·사회적·이슈별 위생관리

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인천시의 하반기 추진계획을 공유하며, 시는 각 기관에서도 자체 추진계획을 세워 예방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.

김순심 시 위생정책과장은 “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관할 식중독 관리부서와 감염병 관리부서, 유관기관 간의 신속한 대응체제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다”면서 “특히 식중독 발생이 가장 집중되는 여름철에 식품을 제조·조리 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”고 당부했다.